

광주 복구 '촘촘한 복지' 성공모델 만들었다

집배원·가스검침원·종교시설 등 연계 위기가구 조기 발견 10년째 사랑의 밥차 운영...천사무료급식소 1년만에 재개

광주시 복구가 도시가스 점검원을 활용해 소외된 이웃을 조기에 발견하고 맞춤형 복지지원 서비스를 펼쳐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7월 광주시 복구 일곡동의 한 아파트에서 도시가스를 점검하던 직원이 복구에 '상황이 심각해보이는 가구를 발견했다'는 신고를 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나선 복구 복지 담당자들이 찾은 이 가구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었던 소외된 취약계층이었다.

집안에는 50ℓ 쓰레기봉투가 쌓여 있었고, 곳곳에 음식물쓰레기와 기저귀 등이 널려 있어 악취가 진동했다. 침대와 다른 가구들도 쓰레기로 뒤덮여 사용할 수 없는 상태였다.

이 가구는 한부모자녀 가구로 30대 여성 A씨가 자신의 자녀인 미취학 남자아이와 함께 살고 있었다. 무직인 이 여성은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거주지가 달랐고 아이도 유치원에 다니지 않고 있어 복지 시스템에 확인되지 않았다.

안전점검원은 지난 5월 복구와 동북도시가스 고객센터가 맺은 업무 협약에 따라 위기의심가구를 발견해 복구에 알린 것이다.

소외된 이웃을 조기 발견해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복구의 촘촘한 복지시스템이 성공 모델로 자리 잡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대목이다.

복구는 A씨에 대한 맞춤형 복지 지원도 잊지 않았다. 신경쇠약 상태였던 A씨와 약간의 발달장애

가 있던 아이에게 심리치료 등을 받을 수 있는 병원을 연계해 치료를 도왔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진행해 집안의 쓰레기를 치우고 후원을 받아 오염이 심한 가구를 교체해줬다.

복구는 도시가스 안전점검원 뿐만 아니라 수도검침원, 우체국 집배원 등과 협력해 위기가구를 조기에 발견하는 시스템을 마련했다.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 동북수도사업소, 북광주우체국, 해양에너지 동북도시가스고객센터 등 유관기관과 업무 협약을 맺고 복지 사각지대의 발굴과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한 것이다.

업무협약의 내용은 위기가구를 발견하면 카카오톡 채널 '광주 복구 희망우체국'으로 제보를 하고,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정기 교육 등이다.

복구는 지난 9월부터 전남지방우정청과 업무 협약을 맺고 광주 최초로 복지급여 탈락자, 공과금 체납자 등을 대상으로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300여 가구에 복지정보가 담긴 등기우편을 발송하는 서비스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 11월에는 기독교, 천주교, 불교, 원불교 등 4대 종단 종교시설과의 협력해 위기가구 발굴에 나섰다. 취약계층들이 편의점을 자주 이용한다는 점에서 편의점과 연계해 편의점 총 213개 가맹점에 다양한 복지정보와 QR코드가 탑재된 홍보물을 배부했다.

복구는 복지 사각지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것



광주시 복구 우산동에 있는 천사무료급식소가 지난 7일부터 다시 운영을 시작한 가운데 14일 어르신들이 식사를 기다리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

외에도 취약계층에 한 끼 식사를 제공하는 것에도 꾸준히 신경을 쓰고 있다. 고물가속에 취약계층에게 한 끼라도 든든한 밥을 제공해야 한다는 점에서도.

복구는 10년째 어르신들이 모이는 우산근린공원에서 매년 4월-10월 일주일에 1번씩 복구자원봉사센터와 함께 '참 좋은 사랑의 밥차'를 운영중이다.

코로나19가 유행해 공원에서 배식이 불가능하자, 도시락을 구매해 배부하는 형식으로 운영을 멈추지 않고 있다.

작년 10월 코로나 19때문에 운영을 중단했던 천

사무료급식소도 복구의 지원으로 되살아났다. 복구는 천사무료급식소 재운영을 위해 유관기관·단체와 수차례 논의 끝에 지속가능한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올해 12월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내년 1월 정식 재개하기로 했다.

재개 첫날 한 어르신은 "너무너무 아쉬워서 여기 지나갈 때마다 글씨 써진 간판을 자꾸 쳐다봤다. 다시 운영을 시작해서 살맛이 난다"고 말하기도 했다.

매년 김장철에도 복구의 복지가 돋보인다. 올해 복구 28개 동행정복지센터 회원들과 복지관 등은

김장김치 2만 5000포기를 담아 관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했다.

2018년 11월부터 동행정복지센터 행사로 진행돼, 어려운 이웃도 돕고 주민 화합과 소통의 장이라는 복구 김장문화가 만들어진 것이다.

문인 복구정장은 "지역사회 전체가 관심을 가지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을 우리 생활의 일부라 생각하고 있다"며 "복지사각지대가 없어지는 날까지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전홍희 기자 strong@kwangju.co.kr

광주·전남, 교통사고 안전지수 '최하위'

행안부 지역안전지수 발표

광주와 전남이 전국에서 교통사고에 가장 취약한 지역으로 꼽혔다. 또 전남은 화재에 대한 안전도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결과는 행정안전부가 15일 공표한 '2022년 전국 지역안전지수'에 담겼다.

이 지수는 지난해를 기준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의 교통사고, 화재, 범죄,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등 6개 분야 안전 수준을 분석, 타 지자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얼마나 안전한지를 등급으로 나타낸 것이다.

등급은 1-5등급으로 나뉘며 1등급에 가까울수록 안전도가 높다. 각 등급은 분야별 사망자와 피해자 수, 안전 장비 설치 수준, 관련 인력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매겼다.

광주는 교통사고 분야에서 최하위인 5등급을 기록해 전국 8개 특별·광역시 중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의 화재, 범죄, 생활안전, 자살 분야 안전등급은 모두 3등급에 머물렀으며, 감염병 분야에서만 겨우 2등급을 받았다.

전남은 교통사고와 화재 2개 분야에서 5등급을 받는 불명예를 안았다. 생활안전, 감염병 분야 또한 4등급을 받는 데 그쳤으며, 자살 분야에서는 3등급을 받았다. 그나마 범죄 분야에서는 지난해보다 1개 등급 상승한 2등급을 기록했다.

교통사고 분야의 경우 전남은 지난 2016년 지역안전지수를 공표하기 시작한 이후 매년 5등급을 받아 온 것으로 나타났다. 시·군·구별 등급을 보면 함평군과 장흥군, 보성군이 5등급을 받아 교통사고에 가장 취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화재 분야에서는 함평군과 곡성군, 진도군이 5등급을 기록해 취약 지역으로 꼽혔다.

정부는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전년 대비 등급 개선도가 높은 지역에 3%, 개선이 필요한 지역에 2%의 소방안전교부세를 지원할 방침이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대장동 의혹' 김만배 자해...생명 지장 없어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만배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1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4일 수원시 장안구 소재 성균관대 자연과학캠퍼스 인근 도로상 벤치 차량 내에서 오전 2~4시 사이 두 차례, 오후 1시께 한 차례 등 총 세 차례에 걸쳐 흉기로 목과 가슴 부위를 찔러 자해했다.

같은 날 김씨의 변호인은 김씨가 실제로 극단적인 선택을 할 것을 우려해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의 변호인은 오후 9시께 김씨와 연락이 닿은 직후 김씨가 있던 현장을 찾아가 몸에 상처를 입은 채 차량에 타고 있던 김씨를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

김씨는 경기도 수원시 아주대병원 권역외상센터에서 응급처치를 받은 뒤 현재 같은 병원 중환자실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김씨는 최근 검찰의 수사 강도가 높아지자 주변에 신변을 비관하는 말을 많이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 주변에 따르면 김씨는 며칠 사이 "자꾸 뱀만들어 내라고 검찰이 압박하는데, 허위진술을 하든지, 내가 사라지든지 해야겠다", "뱀가를 진술해야 할 거 같다. 그게 두렵다"는 등의 토로를 했다고 알려졌다.

경찰은 김씨가 정확히 언제 어디서 자해했는지, 자해했다면 그 이후 행적은 어떻게 되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서 헬러윈 참가 추모제

오늘 5·18 민주광장

158명의 안타까운 죽음이 발생한 '이태원 참사' 49일을 맞아 광주에서 추모제가 열린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10.29 이태원 참사' 광주시민추모모임은 16일 오후 6시 광주시 동구 옛 전남도청 별관 옆 회화나무 숲에서 시민추모제를 개최한다.

이날 시민추모제는 전국에서 진행되며 '전국시민대책위'의 개최 요청에 따라 광주지역에서도 추모제를 개최한다.

행사는 '우리를 기억해 주세요'라는 주제로 추모시, 추모사, 추모노래, 각계 추모사, 헌화·분향 순으로 진행된다. /민현기 기자 hyunki@

로스쿨·의전원생도 취업 후 학자금 상환 가능

내년부터 로스쿨과 의학전문대학원생도 취업 후 학자금을 상환하는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교육부는 국무회의에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통과됐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대학원생의 범위를 기존 '일반대학원 또는 전문기술석사 과정 재학생'에서 '특수·전문대학원 재학생'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3년도부터는 소속 대학원의 종류에 상관없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대학원생(학자금 지원 4구간 및 만 40세 이하)은 취업 후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2023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에 필요한 구체적인 자격요건과 일정·방법은 내년 1월 초에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를 통해 안내될 예정이다. /전홍희 기자 strong@kwangju.co.kr

아직도 묘지를 선호하십니까?

자연장의 장점

- 매장이나 봉안에 비해 비용이 매우 저렴합니다.
- 관리가 편하며 반영구적입니다.
- 생활공간과 가깝습니다.
- 국도를 효율적 활용 자연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잊혀지지 마세요. 잊지마세요. 자연에서 기억하세요. 사람은 원래 자연입니다.






수목장*자연장 전문

수목장 * 자연장

화장한 후 잔디나 화초, 나무 밑에 유골을 묻어 고인을 자연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아름다운 장묘문화입니다.

자연과 인간이 함께하는 새로운 장묘문화입니다

〈 주말, 공휴일도 24시간 상담가능 〉

062) 464 - 9190